

PA-03

호남지역에서 콩 재배시 이식과 직파 간 생육 및 수량

최원영^{1*}, 박형호¹, 김승호¹, 송득영¹¹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서론]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노동력 부족도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최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건강식품, 기능성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 검정콩과 두부를 비롯한 콩에 대한 관심과 부가가치도 많이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콩을 재배함에 있어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생력화 방법으로 콩 이식재배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시험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이식재배에 대한 기술이 정립되고 기계가 개발되어 콩 이식재배가 직파재배와 비슷한 수량과 상품성을 가진다면 생산비를 크게 절감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 시험재료 : 콩 24품종(메주콩 10, 밥밀콩 5, 엽채콩 1, 올콩 3, 나물콩 5)
- 파종일 : 6월 18일(직파), 이식일 : 7월 4일(16일묘)
- 재식거리 : 80/30×30cm, 두줄재배
- 시비량 : N-P₂O₅-K₂O=3-3-3.4kg/10a
- 조사내용 : 초장 등 생육조사, 수량구소요소 및 수량 등

[결과 및 고찰]

2018년에는 개화·착색기(7하~8중)에 폭염 및 가뭄이 지속되어 수분이 불량하여 꼬투리 형성이 저조하였으며, 등숙기에는 온도가 낮아 등숙이 지연 되었다.

8.13. 당시 생육은 직파가 이식보다 개화기는 1일 빨랐고, 초장과 경장은 길었으며, 주경은 두꺼웠고, 분지수는 비슷하였으나 제1착협절위는 이식이 직파보다 높았다.

수확기 착협고는 직파가 이식보다 낮았고 착협수, 주당립수가 많고 백립중이 무거운 직파가 이식보다 수량이 50% 정도 많았다. 전체적인 수량은 이식이 직파 대비 67% 수준이었으며, 콩 용도별 수량을 보면, 이식 대비 직파가 메주콩은 1.76배, 밥밀콩은 1.23배, 엽채콩은 1.31배, 올콩은 1.65배, 나물콩은 1.41배로 메주콩이 직파와 이식간에 차이가 가장 컸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1874)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63-238-5370, E-mail. cwy0615@korea.kr